

Culture Information

: 소통N공감

조직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무리에 잘 섞여 지내는 사람을 '인싸(Insider)'라고 부른다. 대학가에서 시작된 이 말이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이들은 소통을 잘할 뿐 아니라 업무 능력까지 뛰어나 선망의 대상이다. 많은 이의 사랑받는 '인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글 김일균

관심의 중심에 있는 '인싸'

그 인기비결을 아시나요?



예절이 사람을 만든다

인싸와 아싸는 젊은 세대가 즐겨쓰는 말이다. 인사 이더(insider)의 줄임말인 '인싸'는 주변과 잘 어울리며 관심의 중심에 선 사람을, 아웃사이더(outsider)의 줄임말인 '아싸'는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뜻한다.

인싸는 세상을 향해 레이더를 바짝 세우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대중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래서 핫한 아이템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도, 상대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싸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째, 인싸는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직장 또는 어떤 조직에서 동료가 하는 업무 파악은 기본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둘째, 매너를 잘 지킨다. 예의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는 누구도 없을 것이다. 반면 따뜻하게 말하고,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한다. 셋째, 다양한 곳을 많이 돌아다니며 넓은 인맥을 쌓는다. 회식에 빠지지 않고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하며 휴일에는 동료들의 경조사를 일일이 챙긴다. 인싸들은 인간관계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der



핵인싸를 친구로 만든다

사실 직장, 학교, 모임에서 수행 업무나 학업 외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정작 중요한 일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인싸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도 포기하고 만다. 따로 시간을 내 인싸가 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인싸가 되기 위한, 비교적 손쉬운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핵인싸'와 친분을 교류한다. 인싸 중의 인싸인 핵인싸와 관계만 좋아도 자연스럽게 인싸가 될 수 있다.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을 눈여겨 보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니 그에게 접근하는 것도, 친분을 쌓는 것도 어렵지 않다.

둘째,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만든다. 전문 분야가 굳이 업무와 연관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메이저리그 투수

방어율을 줄줄 꿰다거나,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잘 띄우거나, 여행 갔을 때 맛집 한두 곳을 추천할 수 있는 가벼운 지식만 있어도 인싸가 된다.

셋째, 어떤 자리도 참석하지 않는 '프로 불참러'가 되지 않는 것이다.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는 미리 체크해 두고 스케줄을 조정해 빠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참석하지 못한다면 미리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꼭 참석하겠다는 다짐을 건네는 게 좋다.

사람들과 어울려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참인싸

인싸보다 아싸가 되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5명(48.6%)은 자신을 '자발적 아웃사이더'라고 답했다. 관계나 소속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아싸를 택한 사람은 40~50대가 30%, 20~30대는 50% 정도였다.

하지만 조직원 모두가 '아싸'라면 조직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싸가 되려면 모든 이에게 관심 받는 뛰어난 언변과 특출난 능력이 꼭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조직원을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최상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인싸'가 될 수 있다. 사회가 바라는 '참인싸'의 모습은 협동과 이해의 자세다. ☺